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 개최

아이들의 미래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 2,100만 원 전달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7월 3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광양시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총 8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2,100만 원의 기탁금을 전달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주)지티이노베이션(대표이사 신광호) 1,000만 원 △(주)미강이앤지(대표이사 김종필) 300만 원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이) 200만 원 △(주)대호노재솔루션(대표이사 박형규) 100만 원 △광양로엔텍(주) (대표이사 김규한) 100만 원 △광양시행정동우회(대표 고종석) 100만 원 △(주)대일소방(대표 이용기) 200만 원.

신광호 (주)지티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광양시가 어린이를 위하여 좋은 사업을 한다고 들어 힘을 보태고자 기꺼이 동참했다. 아이들이 광양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주)미강이앤지 대표이사는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뜻깊은 일을

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재단에 5년째 기부하고 있는데 광양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이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좋은 분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규 (주)대호노재솔루션 대표이사는 "보육재단의 기부 릴레이에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함 마음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로엔텍(주)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황부성 전무이사는 "기부 릴레이의 취지에 공감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주변에도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많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광양시행정동우회 회장은 "3년째 보육재단에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광양시의 아이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써달라"고 전했다.



다. 고종석 광양백운화물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3년째 기부를 통해 뜻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기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용기 (주)대일소방 대표도 "광양시의 아이는 광양시가 키운다"는 슬로건에 공감해 동참했다. "100인 이상 많은 분이 함께해 보육재단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100명이 100만 원씩 참여하는 취지로 시작된 기부 릴레이에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에 큰 기금이 마련됐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희영 재단 상임이사장은 "오늘까지 48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2억 930만 원이 모금되었다. 처음에는 우려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고사리 손으로 키운 감자 이웃과 나눴어요"

농산어촌유학생·농업인 공동재배 감자 수확... 15개 마을에 전달

장성군 서삼면 서삼초등학교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과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재배한 감자를 이웃과 나눴다.

감자 공동재배는 서삼면이 신규시책으로 기획한 행사다. 올해 초, 유학생 가족 9세대와 지역농가 4곳이 경작에 참여하면서 시작했다.

재배 장소는 참여농가 대표 김남수 농업인이 약 529㎡(160평) 규모 사유지를 무상 제공해 마련했다. 세대별 텃밭과 공동농장으로 나눠 운영했으며 '서삼애(愛)농장'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함께 감자를 재배한 지 3개월여가 지나 자 감자 수확 시기가 찾아왔다. 정성이 담긴 '서삼애농장' 감자는 서삼면 15개 마을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그 사이 유학생 가족과 지역 농업인들도 '진짜 이웃'이 됐다.

유학생 대표 서동권 씨는 "마을 어른들이 아이 얼굴을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실 때마다 시골살이의 따뜻한 정을 느낀다"며 "감자를 나누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해영 서삼면장은 "고사리 손으로 키운 소중한 감자가 '이웃 나눔'이라는 뜻을 피웠다"면서 "농장 운영에 도움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남도, 이달의 임업인에 산약초 생산자 이정은 임업후계자

임산 소득 다각화·기술 자문 등 청년 임업인 멘토 활약

전라남도는 7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장흥 장동면에서 산약초를 생산하는 이정은 임업후계자를 선정했다.

이정은 임업후계자는 2005년 임산물 생산을 시작한 이후 안정적 임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재료로 활용가능한 산약초 대규모 재배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선진 임업인이다.

주로 생산하는 임산물 품목은 작약과 초피, 복령, 산수국 등이다.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연간 약 5톤을 생산하고 3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자체 목장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가공 인프라 시설도 갖춰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 임업인이 고소득 임업인으로 자립하고 성장하도록 조언과 기술



자문을 수행해 임업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정은 임업후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해 임산소득 다각화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 임업인들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원 기자



순천시 왕조청년회, 식료품 꾸러미 기부

고영양 간편 식료품 10세트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순천시 왕조청년회(회장 정철우)는 지난 2일, 관내 독거어르신과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간편 국, 누룽지, 달걀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 10세트를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나눔으로, 전달된 식료품은 조리과 섭취가 간편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무더위로 입맛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우 왕조청년회 회장은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직접 살필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에 창립된 순천 왕조청년회는 왕조1동 물총축제, 복지시설 봉사, 경로당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순천/정성인 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방문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현황을 찾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3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달 20일 삼정 경로당을 방문해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했

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민원창구'는 이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군이 운영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민원 상담을 비롯해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